

# “스타트업 코리아, 세계 최고 수준 ‘창업환경 조성’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다산다사’형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기술창업 관련 대문 통해 의논할 것 수출 지역·제품 다양화하는 것 중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인 ‘노란우산’ 제도를 개편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첨병 역할을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창업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범부처 신고센터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코트라(KOTRA)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전진기지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을 모색한다. 스마트공장 예산도 내년엔 더욱 늘려 제조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추가로 돕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계 최고 수준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다산다사’형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전망도 더욱 강화한다.

이 장관은 “노란우산 기금이 굉장히 많다. 관련 기금이 소상공인들의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개편안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국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진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소진공에)외부 전문가도 추가 수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창업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다. 범부처가 힘을 모아 일원화된 신고센터를 만들 것이다. 이는 ‘대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은 대문을 통해 의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 1155억 달러, 2022년 1145억 달러로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전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1호를 연데 이어 6월 중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로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가진 프리젠테이션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2(이).0(영)’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수출 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KOTRA가 맡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선 “코트라라는 해외에선 공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렇다보니 코트라가 관장하는 GBC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법인)은행계좌도 만

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코트라 산하의 GBC를 독립시켜야 한다. 코트라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통째로)이 관하는 문제가 아니다. 협업을 통해 GBC가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적성국이 아닌 이상 (모든 곳에)수출을 해야 한다. 제3의 수출국을 개척하는 것도 속제다. 중국도 그 중 하나다. (코로나 이후)중국도 개방을 한 만큼 수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스마트화는 절실하다.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엔 올해보다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개각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소·소상공인 특별전... “온라인서 축제 즐겨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엔데믹 맞아 지자체와 지역행사 연계 봄·가을·겨울 각 세 번 걸쳐 진행



지난 9일 대전 중구 으스정이 스카이라드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e커머스 기업들은 각기 다른 일정으로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맞닿은 유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힘을 합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커머스 기업들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해 대거 참여한다.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의 행사는 각기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다. 올해는 봄, 가을, 겨울 각 세 번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엔데믹(풍토화)을 맞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팬데믹 피해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행사에 연계했다.

자에게 최대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동행축제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도 28일까지 현대H몰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쇼라에서 ‘동행축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현대H몰을 통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대용량 물티슈 등을 최대 29% 할인가에 판매하며 쇼라에서는 육류, 세제와 샴푸 등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이 꼽은 쇼라대표 상품으로는 23일 오후 2시 방송되는 영주 한우 등심과 간장꽃게장이 있다. 여기에 더해 현대홈쇼핑은 행사기간 고객 1인당 최대 17%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LF 트라이씨클은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행축제에 참여를 결정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

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하프클럽과 보리보리는 이 기간 패션, 식품, 리빙, 육아용품 등 카테고리에서 총 70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

하프클럽은 봄나들이를 위한 의류부터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식품, 집들이 선물세트 등 대상 상품에 사용 가능한 20% 장비구니 쿠폰을 지급한다. 또, 우수 소상공인 상품 구매고객 100명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인터파크쇼핑은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쇼핑 혜택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전 동행축제 행사에서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2개월 동안 입점 소상공인들은 직전 2개월과 비교해 상당한 매출 증가 효과를 본 바 있다. 유모차,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세이프웨이’는 543%,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콜롬비아헬스케어’는 361% 거래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이에스시 1분기 매출 464억 달성 전년 대비 11% 증가



아이에스시가 반도체 시장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아이에스시는 1분기 매출 463억8000만 원에 영업이익 97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11% 성장한 것. 영업이익이 38%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아이에스시는 비메모리 서버 팹리스와 R&D향 소켓 매출이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들어 비메모리용에 투자한 덕분에 메모리 시장 악화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주력 제품군인 실리콘 러버 소켓의 서버 및 GPU 테스트 소켓 수요도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투자를 본격화한 포고 소켓 매출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업턴으로 매출 10% 이상에 영업이익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팹리스 고객사들의 양산 물량 수주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메모리 비중은 7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베트남과 국내 양산 라인의 공정개선, 원가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률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두산에너지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원자력산업 생태계 부활 신호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경북 울진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할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15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 앞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두달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원전 주기기는 핵연료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의 초기 제작 현장을 공개했다. 자체 용광로를 통해 생산한 200톤 규모의

합금강을, 1만7000톤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작업을 통해 증기발생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다. 1만7000톤 프레스는 성인 남성 24만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은 힘을 낸다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측은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외에도 원자로, 터빈발전기, 원전 계측제어설비(MMIS),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등 주요 기기를 신한울 3·4호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합

을 모은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한다. 이미 지난해 약 320억 원을 조기 발주했고, 올해는 약 22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 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신한울 3·4호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 공급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양성윤 기자 ysw@